

태권도선수의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aekwondo Athletes'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on Achievement Orientation and Achievement Behaviors

임영진*, 송은섭**

우석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Young-Jin Lim(limyj-yj@hanmail.net)*, Eun-Seob Song(essong@woosuk.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성취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호남권 거주 태권도 선수 256명으로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태권도선수의 참여동기는 성취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태권도선수의 참여동기는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로하여 성취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태권도선수의 경기력향상에 있어서, 참여동기를 반영하여,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태권도선수 | 운동 | 참여동기 | 성취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Taekwondo athletes'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achievement orientation and achievement behavior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chievement orien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6 athletes' in Honam. The questionnaire data were utilized for verification of hypothe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aekwondo athletes'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presen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achievement orientation. The achievement orienta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hievement behaviors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chievement orientation. Fin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point of view of the effect of Taekwondo athletes'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achievement orientation and achievement behaviors. It is worthwhile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achievement orientation.

■ keyword : | Taekwondo Athletes | Sports | Participation Motivation | Achievement Orientation | Achievement Behaviors |

I. 서론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갖는 스포츠이다. 이러한 스포츠현장에서 선수들은 자신만의 실력과 기술을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1]. 이를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행동은 스포츠에 있어서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특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스포츠 참여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다 뛰어난 선수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 노력, 현재의 부족한 부분 혹은 갖고자 하는 부분을 의도적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태권도 종목의 참여동기라 할 수 있다[2]. 참여동기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이끌어 가는 내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3][4].

동기 및 성취이론의 경우 학업분야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 분야에 널리 적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Vallerand(1992)는 스포츠 참여동기를 내적동기, 외적 동기, 그리고 무동기로 분류하였다[5]. 이러한 스포츠 참여동기는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로 구분된다. 내적동기는 보상없이도 운동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좋아서 하게 된 것을 말한다. 외적동기는 스포츠 활동 자체를 흥미를 느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적보상에 의하여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 동기를 의미한다. 한편, 무동기는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도 없고, 보상에도 별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6].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동기는 성취목표지향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선수들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스포츠 종목에서의 성취목표 지향성은 목표지향적 성향과 자아지향적 성향이다[7][8]. 성취목표 지향성에 따라 성취행동이 달라지게 된다[9]. 그러므로 태권도 선수의 경우 선수로서의 지속성을 유지 및 성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및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행동이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 선수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과 행

동이이다[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경우 성취목표지향과 성취행동을 위해 동기가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러 스포츠종목 가운데, 태권도 종목은 우리나라 국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의 인기종목에 비해 대중의 관심도가 매우 낮고 선수로서의 성취 및 성공에 대한 보상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여타 종목에 비해 스포츠 동기에 따른 성취목표지향 및 이에 따른 성취행동이 특히 중요하

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성취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참여동기

동기(motivation)란 어떤 행동에 대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구동력이다. 따라서 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과 자세이며 목표도 도달하기 위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그리고 무동기(Amotivat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2].

첫째, 내적동기는 선수가 어떤 외부 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이다[13]. Deci & Ryan(1987)은 내적동기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4]. 선수들은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을 때 물질적 보상이나 외적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스포츠 선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외적동기는 어떤 동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타인의 압력 등에 의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적 동기와는 반대로 외적 동기는 스포츠 참여가 건강, 트로피, 상금 등의 보상에 의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 외적동기라고 볼 수 있다[15]. 외적 동기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행

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무동기이다. 이는 선수들이 보상에도 별 관심이 없고 지속적으로 선수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무관심을 동반하는 동기이다[13].

2.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 지향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 선수들의 숙련지향성에 따라 동기화가 다르게 나타난다[16]. 즉, 선수들이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과 자신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17]. 성취목표지향성은 운동선수가 주어진 과제에 어떠한 이유와 의미를 두고 수행에 임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과제를 왜 수행하는가에 대한 답이다[18].

스포츠 상황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성취목표 성향은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이다. 자아목표지향성의 선수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승리와 패배의 범주에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과제목표지향성 선수들은 운동에 대한 숙련과 자기발전의 범주에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며[17], 기술이 향상되거나 노력을 많이 했을 경우 유능하다는 느낌이 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9]. 따라서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수의 태도와 수행이 달라지며 이는 운동수행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성취행동

성취행동은 성취동기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최종 종속변수의 개념으로, 성취목표를 향한 선수의 노력과 지속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20]. 즉, 성취행동은 수행을 위한 노력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포츠선수에게 적용한다면 선수로서의 운동수행능력, 지속적인 성취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로 개념화 할 수 있다[21].

이상에서 보듯이 성취행동은 성취와 관련된 동기이론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즉, 동기는 학습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개인의 수행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성취

동기는 학습, 기억, 인지, 정서, 사회적 지원 등의 경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취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맥락과정이 기대감과 가치지각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취동기이론에서 기대와 가치에 대한 개념은 오랜 시간 동안 일치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성취행동은 성취동기 이론과 기대-가치 모델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취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에는 주로 학습상황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성취목표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로 구분하였다[22]. 예를 들어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긍정적 자아개념, 정서, 태도를 보이며 과제에 대한 수행을 지속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나타내었고,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낮은 자신감, 부정적 자아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성취행동 이론은 기대-가치 모델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태권도선수의 성취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대-가치 모델을 접목하였다[23].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호남권 장애인 태권도 선수 및 일반 선수(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한 자료 256부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에 협조한 선수들에게 충분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후 직접 방문 또는 e-메일을 통해 자기기입법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태권도 장애인 선수 103명과 일반인 선수 153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장애인		일반인		전체	
		N	(%)	N	(%)	N	(%)
성별	남	61	(59.2)	91	(59.5)	152	(59.4)
	여	42	(40.8)	62	(40.5)	104	(40.6)
소속	고등부			153	(100.0)	153	(59.8)
	대학부	6	(5.8)			6	(2.3)
	일반부	97	(94.2)			97	(37.9)
선수 경력	3년 미만	7	(6.8)	76	(49.7)	83	(32.4)
	3년~5년 미만	22	(21.4)	59	(38.6)	81	(31.6)
	5년~10년 미만	36	(35.0)	16	(10.5)	52	(20.3)
	10년 이상	38	(36.9)	2	(1.3)	40	(15.6)
입상 경력	있음	88	(85.4)	97	(63.4)	185	(72.3)
	없음	15	(14.6)	56	(36.6)	71	(27.7)
장애 유형	지체	97	(94.2)			97	(94.2)
	청각	6	(5.8)			6	(5.8)
합계		103	(100.0)	153	(100.0)	256	(100.0)

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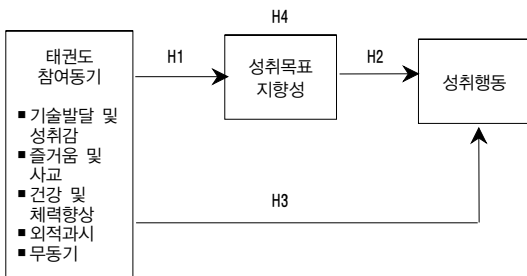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에서, Maehr & Nicholls(1980)[24]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많은 연구들이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성취목표 성향에 따라 실제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엘리트 체육인인 선수들의 경우 성취행동은 성취욕구와 관련하여 운동선수의 노력과 지속행동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9][20]. 박중길, 김기형(2010)[25], 최천, 전재진(2011)[26]의 연구에서는 스포

츠선수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태권도 종목에 동기 및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기선(2010)은 태권도선수들의 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태권도선수들의 태권도 스포츠 참여에 대한 내적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27]. 김용수(2011)의 연구 또한 태권도선수들의 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8]. Orlick & Partington(1998)은 선수들의 성공에 대한 집념과 목표설정애 따른 효과적인 훈련, 시합을 가상한 심리적인 준비, 치밀한 시합 대비전략 등의 목표지향성이 실제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성취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참여동기와 성취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론적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태권도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는 성취목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태권도선수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은 성취목표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태권도선수의 즐거움 및 사교는 성취목표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태권도선수의 건강 및 체력향상은 성취목표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태권도선수의 외적과시는 성취목표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태권도선수의 무동기는 성취목표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 지향성은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태권도선수의 과제목표지향성은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태권도선수의 자아목표지향성은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태권도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는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태권도선수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은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태권도선수의 즐거움 및 사고는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태권도선수의 건강 및 체력향상은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태권도선수의 외적과시는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태권도선수의 무동기는 성취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태권도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취목표 지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태권도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과제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태권도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3.1 태권도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에 대한 참여동기 변수의 경우 Vallerand et al.(1992)[5]이 개발한 SMS-28(sport motivation scale)을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박재성(2011)[6], 정구현(2012)[30]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향상, 외적과시, 무동기 요인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권도선수로서의 태권도 종목의 참여동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성취목표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 변수의 경우 Duda & Nicholls(1989)[31]가 개발한 설문지를 국내에서 사용한 유승원(2006)[32], 권오민(2008)[1]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목표지향성, 자아목표지향성 요인 등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권도 선수로서의 성취목표지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성취행동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에 대한 성취행동 변수의 경우 박중길과 이경환(2011)[10], 강경우(2017)[2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일 요인으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권도 선수로서의 성취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자료 통계 처리는 SPSS 24.0 통계 패키지와 AMOS 24.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태권도 선수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태권도선수의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및 성취행동 측정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평가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문항 삭제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M)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태권도선수의 참여동기 및 성취행동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 지향성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과 가설 검증의 유의수준은 $\alpha=.05$ 에서 수행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태권도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동기, 무동기 등 참여동기,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 등 성취목표지향성, 성취행동 등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1265.338$ ($df=637$, $p<.001$), $\chi^2/df=1.986$, SRMR=.060, TLI=.913, CFI=.921, RMSEA=.052(90%CI: .057~.067) 등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동기, 무동기 등 참여동기, 과제목표지향

성과 자아목표지향성 등 성취목표지향성, 성취행동 등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였고($p<.001$),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0.7이상으로 높았으며, 이론적으로 부적합한 음 오차분산(heywood case) 등은 나타나지 않아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χ^2	df	p	χ^2/df	SRMR	TLI	CFI	RMSEA
1265,338	637	.000	1,986	.060	.913	.921	.062

다음으로 잠재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념신뢰도(CR)의 경우 태권도 선수들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939),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t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 추출 (AVE)	
기술발달 및 성취감	→ pm 7	1,000	.823	-	-	.939	.719
	→ pm 12	1,070	.811	.069	15,404***		
	→ pm 22	1,016	.808	.066	15,329***		
	→ pm 24	1,022	.808	.067	15,319***		
	→ pm 26	1,015	.828	.064	15,906***		
	→ pm 27	1,013	.855	.061	16,714***		
즐거움 및 사고	→ pm 1	1,000	.911	-	-	.938	.716
	→ pm 2	.933	.852	.046	20,110***		
	→ pm 3	1,027	.880	.047	21,714***		
	→ pm 5	.931	.838	.048	19,418***		
	→ pm 17	.801	.739	.053	15,188***		
	→ pm 19	.792	.710	.056	14,198***		
건강 및 체력 향상	→ pm 4	1,000	.806	-	-	.825	.548
	→ pm 9	.841	.621	.084	10,061***		
	→ pm 15	.781	.576	.085	9,238***		
	→ pm 16	1,028	.851	.071	14,519***		
외적 과시	→ pm 8	1,000	.794	-	-	.788	.554
	→ pm 11	.983	.740	.090	10,860***		
	→ pm 21	.794	.683	.078	10,131***		
무동기	→ pm 10	1,000	.713	-	-	.818	.559
	→ pm 14	.987	.783	.090	10,985***		
	→ pm 20	1,027	.732	.099	10,394***		
	→ pm 28	1,113	.769	.103	10,837***		
과제목표 지향성	→ ago 1	1,000	.923	-	-	.965	.824
	→ ago 2	1,036	.917	.040	25,858***		
	→ ago 3	.995	.903	.040	24,657***		
	→ ago 4	.955	.870	.043	22,250***		
	→ ago 5	1,034	.886	.044	23,375***		
	→ ago 6	.957	.825	.049	19,514***		

즐거움 및 사교(.938), 건강 및 체력 향상(.825), 외적 동기(.788), 무동기(.818) 등 참여동기 잠재변인과, 과제목표지향성(.965)과 자아목표지향성(.872) 등 성취목표지향성, 성취행동(.917) 등의 잠재변인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 값(AVE) 역시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719), 즐거움 및 사교(.716), 건강 및 체력 향상(.548), 외적 동기(.554), 무동기(.559) 등 참여동기 잠재변인과, 과제목표지향성(.824)과 자아목표지향성(.578) 등 성취목표지향성, 성취행동(.733) 등의 잠재변인 모두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과 건강 및 체력 향상 참여동기, 즐거움 및 사교와 건강 및 체력 향상 참여동기,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과제목표지향성, 기술발달 및 성취감과 성취행동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은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과시, 무동기 등의 참여동기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가장 낮은 평균분산추출 값을 보이는 건강 및 체력 향상 참여동기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 검증

2.1 연구모형 검증결과

조사대상 태권도 선수들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교,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동기, 무동기 등 참여동기,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 등 성취목표지향성, 성취행동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1276.482(df=638, p<.001)$, $\chi^2/df=2.001$, SRMR=.061, TLI=.912, CFI=.920, RMSEA=.063(90%CI: .058~.068) 등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하며 연구결과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χ^2/df	SRMR	TLI	CFI	RMSEA
1276.482	638	.000	2.001	.061	.912	.920	.063

1.2 연구가설 검증결과

1.2.1 연구가설 1 검증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1의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과제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권도 참여동기 중 기술발달 및 성취감(표준화 경로계수=.473, $t=6.574$, $p<.001$), 즐거움 및 사교(표준화 경로계수=.335, $t=4.503$, $p<.001$), 건강 및 체력 향상(표준화 경로계수=.221, $t=3.472$, $p<.001$) 참여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과제목표지향성도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외적 과시 참여동기와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1-1, 1-1-2, 1-1-3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1-1-4, 1-1-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자아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권도 참여동기 중 기술발달 및 성취감(표준화 경로계수=.509, $t=4.016$, $p<.001$)과 건강 및 체력 향상(표준화 경로계수=.297, $t=2.632$, $p<.01$) 참여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목표지향성도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즐거움 및 사교와 외적 과시 참여동기, 그리고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1-2-1, 1-2-3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1-2-2, 1-2-4, 1-2-5는 기각되었다.

표 5.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기술발달 및 성취감	→	과제목표지향성	.518	.473	.079	6.574***
즐거움 및 사교	→	과제목표지향성	.321	.335	.071	4.503***
건강 및 체력 향상	→	과제목표지향성	.243	.221	.070	3.472***
외적 과시	→	과제목표지향성	-.076	-.076	.055	-1.394
무동기	→	과제목표지향성	-.036	-.035	.044	-.828
기술발달 및 성취감	→	자아목표지향성	.442	.509	.110	4.016***
즐거움 및 사교	→	자아목표지향성	-.045	-.059	.098	-.455
건강 및 체력 향상	→	자아목표지향성	.259	.297	.098	2.632**
외적 과시	→	자아목표지향성	.052	.066	.075	.694
무동기	→	자아목표지향성	.101	.124	.061	1.642

p<.01, *p<.001

1.2.2 연구가설 2의 검증

요양병원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2의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 선수의 과제목표지향성은 성취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442, t=3.2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목표지향성 역시 성취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201, t=2.96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이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성취행동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과 2-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414	.442	.126	3.292***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238	.201	.08	2.963**

p<.01, *p<.001

1.2.3 연구가설 3의 검증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는 성취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 선수의 참여동기 가운데 기술발달 및 성취감 요인만이 성취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259, t=2.07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이 기술발달 및 성취감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성취행동은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즐거움 및 사교와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과

시 등의 참여동기와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성취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3-2, 3-3, 3-4, 3-5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술발달 및 성취감 동기요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 즐거움 및 사교,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과시, 무동기 등의 태권도 동기 요인은 직접적으로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기술발달 및 성취감	→	성취행동	.266	.259	.128	2.075*
즐거움 및 사고	→	성취행동	.089	.099	.097	.911
건강 및 체력 향상	→	성취행동	-.025	-.024	.099	-.256
외적 과시	→	성취행동	-.107	-.114	.071	-1.499
무동기	→	성취행동	-.04	-.041	.056	-.702

*p<.05

1.2.4 연구가설 4의 검증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목표지향성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4의 검증을 위해 간접효과에 대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1,000번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앞서 살펴본 가설 1의 검증 결과에서 태권도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변인과 성취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제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기술발달 및 성취감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215, 95%CI: .015~.535, p<.05), 즐거움 및 사고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33, 95%CI: .015~.375, p<.05), 건강 및 체력 향상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01, 95%CI: .008~.294, p<.05)는 모두 95%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의 매개를 통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4-1-1, 4-1-2, 4-1-3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4-1-4, 4-1-5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기술발달 및 성취감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05, 95%CI: .024~.225, p<.05), 건강 및 체력 향상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062, 95%CI: .006~.212, p<.05)는 모두 95%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를 통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4-2-1, 4-2-3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4-2-2, 4-2-4, 4-2-5는 기각되었다.

특히, 과제목표지향 성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 모두 태권도 선수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동기에 따른 성취행동에 있어서 간접효과, 즉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른 동기 요인보다는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행동을 높일 때, 성취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더욱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태권도 선수의 과제목표지향 성향 및 자아목표지향 성향 모두 태권도 선수로서의 성취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 연구가설 4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95%CI
기술발달 및 성취감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215	.209	(.015~.535)
즐거움 및 사고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133	.148	(.015~.375)
건강 및 체력 향상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101	.098	(.008~.294)
기술발달 및 성취감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105	.102	(.024~.225)
건강 및 체력 향상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062	.060	(.006~.21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역 태권도선수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성취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호남권 태권도선수(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25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 20.4 통계 패키지 및 AMOS 20.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태권도 참여동기,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성취행동 측정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과제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태권도 참여동기 중 기술발달 및 성취감(표준화 경로계수=.473, $t=6.574$, $p<.001$), 즐거움 및 사고(표준화 경로계수=.335, $t=4.503$, $p<.001$), 건강 및 체력 향상(표준화 경로계수=.221, $t=3.472$, $p<.001$) 참여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과제목표지향성도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외적 과시 참여동기와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제목

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자아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권도 참여동기 중 기술발달 및 성취감(표준화 경로계수=.509, $t=4.016$, $p<.001$)과 건강 및 체력 향상(표준화 경로계수=.297, $t=2.632$, $p<.01$) 참여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아목표지향성도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즐거움 및 사고와 외적 과시 참여동기, 그리고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목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선수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성원호(2005)[2006], 유승원(2006)[29], 박종길, 김기형(2010)[25]의 연구결과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태권도선수들의 참여동기부여, 특히 기술발달 및 성취감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태권도 선수의 과제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태권도 선수의

과제목표지향성은 성취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442, $t=3.2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목표지향성 역시 성취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201, $t=2.96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이 과제목표지향성과 자아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성취행동도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목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Maehr & Nicholls(1980)[24], Nicholls(1989)[19]의 연구결과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선수들의 성취행동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태권도선수들의 과제목표지향성향 뿐만 아니라 자아목표지향성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태권도 선수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 참여동기만이 성취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표준화 경로계수=.259, $t=2.07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들이 기술발달 및 성취감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성취행동은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즐거움 및 사고와 건강 및 체력 향상, 외적 과시의 참여동기와 특별한 참여동기가 없는 무동기는 성취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선수의 스포츠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박중길, 김기형(2010)[25]의 연구, 최천, 전재진(2011)[26]의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성취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발달 및 성취감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와 성취행동 간

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제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기술발달 및 성취감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215, 95%CI: .015~.535, $p<.05$), 즐거움 및 사고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33, 95%CI: .015~.375, $p<.05$), 건강 및 체력 향상 → 과제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01, 95%CI: .008~.294, $p<.05$)는 모두 95%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과제목표지향성의 매개를 통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즐거움 및 사고,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과제목표지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참여동기가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기술발달 및 성취감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105, 95%CI: .024~.225, $p<.05$), 건강 및 체력 향상 → 자아목표지향성 → 성취행동 경로의 간접효과(비표준화 경로계수=.062, 95%CI: .006~.212, $p<.05$)는 모두 95%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 등의 참여동기는 자아목표지향성의 매개를 통해 성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태권도 선수의 태권도 기술발달 및 성취감, 건강 및 체력 향상과 관련한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자아목표지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비인기종목인 태권도 선수의 경우 선수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성취목표지향성과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성취행동이 절

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선수로서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은 태권도 종목 선수로서의 동기부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회입상 등 성취도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협회나 기관, 국가 등에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태권도 동기부여에 따른 지속적인 선수생활 영위와 성취목표 향상 및 성취행동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동기 및 성취목표지향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거나 동기 및 성취에 따른 만족도 영향평가에 그쳤지만,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 및 성취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모두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나아가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까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 향상을 위한 동기이론에 있어서, 기존 학습 분야의 학습동기를 스포츠 분야인 태권도선수의 스포츠 참여동기로 확대,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도 기존 실증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인 장애인 태권도 선수 및 일반 선수 256명만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종목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호남권 태권도 선수에 국한된 본 연구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오민, *태권도선수의 스포츠자신감이 성취목표지향성 및 자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 고광중,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활동 참가에 따른 참여 동기와 수련만족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3] 최재희, 이화석, “댄스 스포츠 참여노인의 참여동기, 심리적 행복감, 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156-169, 2012.
- [4] 이은철,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학습동기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416-424, 2017.
- [5] R. J. Vallerand,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2, pp.1003-1017, 1992.
- [6] 박재성, *생활체육동호인의 운동참여동기, 운동물입경험,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7] J. L. Duda, “Goal Perspectives, Participation and persistence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20, pp.42-56, 1989.
- [8] G. C. Roberts, *Toward a new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port*, II: HumanKineti, 1984.
- [9] 박중길, 김기형, “기대-가치모델을 이용한 운동정체성과 성취행동의 관계 이해: 스포츠 종목과 경력 간 다집단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81-196, 2012.
- [10] 박중길, 이경환, “체육수업에서 기대-가치와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가 중학생의 지속행동에 미치는 중재효과,”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3호, pp.251-262, 2011.
- [11] 김지태, 서은철, “장애인 엘리트선수들이 지각하는 지원체계 문제점의 내용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3권, 제3호, pp.65-81, 2015.
- [12] 이광수,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 스포츠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13] E. L. Deci and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1985.
- [14] E. L. Deci and R. M. Ryan,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 pp.1024-1037, 1987.
- [15] E. L. Deci,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1975.
- [16] 배영훈, *일반 골퍼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스포츠 참여동기 및 몰입과 귀인유형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7] 송원호, *태권도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수련생들의 내적동기 및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8] 정운경, “목표 지향성이 실패 후 아동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85-203, 2007.
- [19] J. G. Nichollas,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Vol.91, pp.328-346, 1989.
- [20] A. E. Cox and D. E. Whaley, “The influence of task value, expectancies for success, and identity on athletes’ achievement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16, pp.103-117, 2004.
- [21] J. L. Houle, B. W. Brewer, and A. S. Kluck, “Developmental trends in athletic identity: A two-part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33, No.2, pp.146-159, 2010.
- [22] C. S. Dweck and E. L. Leggett,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Vol.95, pp.256-273, 1988.
- [23] 강경우, *기대-가치 모델을 적용한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운동정체성과 성취행동의 구조관계: 지원 체계 지각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24] M. L. Maehr and J. L. Nicholls,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in N. Warren(E. 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25] 박중길, 김기형, “학생 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 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조절의 구조적 관계: 3가지 동기이론의 관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81-196, 2010.
- [26] 최천, 진재진, “태권도 품새 선수의 성취목표가 운동만족 및 수련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제5권, 제1호, pp.113-127, 2011.
- [27] 심기선, *고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스포츠 성취 목표지향과 내적동기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김용수, *대학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수행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9] T. Orlick and J. Partington, “Mental links to excellence,” *The Sport Psychologist*, Vol.2, pp.105-130, 1988.
- [30] 정구현, *승마참여자의 참여동기, 몰입, 만족 및 재참여 분석을 통한 소비자 행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31] J. L. Duda and J. L. Nicholls,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work &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4, pp.290-299, 1989.
- [32] 유승원, *골프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내적동기 및 지도효율성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임 영 진(Young-Jin Lim)

정회원



- 2004년 2월 : 호남대학교 체육학 (학사)
- 2006년 2월 : 용인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11년 2월 : 국민대학교 체육교육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대학원 체육과학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태권도, 스포츠동기, 선수지도

송 은 섭(Eun-Seob Song)

정회원



- 1977년 2월 : 전북대학교 체육학 (학사)
- 1985년 2월 : 경희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1년 2월 : 명지대학교 이학 (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교수(학과장)

<관심분야> : 태권도, 스포츠 심리, 코칭